

인터넷 신조어의 생성에 관하여

신 희 삼(동신대학교)

<국문초록>

어휘의 생성과 성장 소멸은 일정 부분 사회 현상과 연관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은 언중들의 소통 방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들은 쉽고 빠르고,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인터넷 상에 나타나는 일시적 유행어와 은어의 양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에 대한 생성을 논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신조어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어 어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인터넷 신조어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언어의 확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파괴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전형적인 신조어의 의미 특성과 분류, 그리고 투명성과 수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신조어의 의미특성과 생성 양상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제시하고, 3장에서는 인터넷 신조어 중에서 일상적 유행어와 은어를 중심으로 의미특성에 따라 음운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인터넷 신조어의 투명성과 수용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투명성은 불투명성, 반투명성, 투명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수용성의 기준으로는 조어법, 고유어, 통용성, 대중성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신조어, 형태 확장, 축소, 합성, 파생, 혼성어, 준말, 대치, 유의어, 반의어, 관용표현, 은어, 투명성

1. 서론

어휘의 생성과 성장 소멸은 일정 부분 사회 현상과 연관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은 언중들의 소통 방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행되는 신조어들은 쉽고, 빠르고, 드러나

지 않는 익명성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인터넷 상에 나타나는 일시적 유행어와 은어의 양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 발달에 따른 신조어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신조어¹⁾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성되고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에 대한 생성을 논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신조어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어 어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인터넷 신조어는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통용되지만 일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쓰이기도 한다²⁾. 신조어의 특성으로는 경제성, 신속성, 익명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와 정리를 통해 평가와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신조어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언어의 확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파괴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다. 일시적 유행어나 은어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일이다. 지금 더욱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이버 환경의 확산에 따른 엄청난 양의 인터넷 신조어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서 통용 가능한 의미의 신조어 범주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조어 목록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표준어로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신조어 목록 편입 후 5년간 추이를 보아 표준어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조어의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표준어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조어의 의미 특성과 분류, 투명성과 수용성에 관한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신조어의 의미특성과 생성 양상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제시하고, 3장에서는 인터넷 신조어 중에서 일상적 유행어와 은어를 중심

1) 인터넷 신조어는 인터넷 통신 언어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른 점은 인터넷 신조어란 용어는 신조어에 무게가 실린 개념이다. 최근의 인터넷 신조어의 생성은 굉장히 활발한 편이다. 특히 그 중에는 일시적인 유행어나 은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일시적인 유행어와 은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이는 공식적인 문서에 ‘ㅋㅋ’ 같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으로 의미특성에 따라 음운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인터넷 신조어 중에서 일상적인 유행어와 은어를 중심으로 의미적 투명성과 수용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는데 신조어 목록 편입 기준과 표준어 목록 편입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2. 신조어의 양상과 의미 특성

신조어는 사전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말이란 뜻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보통 신어, 신조어, 신형어, 신생어, 새말 등이 혼용되고 있다³⁾.

신조어가 대중의 보편성과 항구성을 인정받아 사전에 등재되면 그때 신조어가 아닌 등재어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임시어, 유행어, 은어, 전문어 등에 속할지라도 어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두 포함해서 다룰 것이다⁴⁾.

2.1. 신조어 생성의 계기

신조어는 기존의 낱말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온전히 새로운 의미의 신조어는 매우 드물고 기존의 낱말 형태를 바꾸거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화된 방식이다⁵⁾.

3) 김광해(1993)는 언어 사회의 물질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표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라 하고, 문금현(1999)은 신어는 기존의 언어와 유연성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신조어는 고유어든지 외래어든지 구분 없이 기존 언어재를 새롭게 조합해서 만든 말이나 기존 어휘의 일부를 잘라내서 형태를 변화시켜 만든 말이고, 신생어는 기존 언어와 유연성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이라고 하여 신어, 신조어, 신생어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승명(2001)은 대부분 기존의 의미재를 사용하여 새말을 만들었거나, 외래어 기용 또는 기존어를 새 국면에 기용함으로써 의미를 추가하여 만든 말은 광의의 신어라고 하였다. 기존의 말과 유연성 없이 완전히 새로 된 말로서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말은 협의의 신어라고 보며 사전에 등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백영석(2001)은 신조어, 신생어, 전의어, 차용어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도원영(2007)은 실질적 신어, 일시적 신어로 나누고 있다.

4) 신조어 목록은 국립국어원 신조어 목록과 인터넷의 신조어 사전의 예를 참조하였다.

5) 에이치슨(1994a: 165-6)에 따르면 새말을 생산하는 능동적 과정은 보조 부문으로서 머

- (1) ① 능금빨가위벌, 조울증, 수면상전진증후군, 문열개, 태반주사
 ② 연보(年譜)→해적이, 네티즌→누리꾼
 ③ 킹왕짱, 낚시,

위의 ①은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겼을 때 만든 신조어들이다. 보통 이러한 신조어들은 전문적인 용어인 경우가 많다. ②의 예는 외래어 순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연보(年譜)→해적이’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시킨 예이고, ‘네티즌→누리꾼’은 영어를 고유어로 순화시킨 예이다. ③은 기존의 표현에 대한 불만족으로 같은 뜻의 새로운 표현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이에 따라 신조어 생성의 계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조어는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명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외래어의 순화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기존 표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새로운 표현 욕구의 필요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물이나 개념이라도 그것의 원래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더 신선한 표현을 위해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유행하는 통신언어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2.2. 신조어 생성 방식

신조어의 생성 방식은 언어 경제학적인 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조어의 생성 방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단어를 가지고 생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조어는 다음과 같이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2) ① 추가추가, 습가, 오나전, ㅇㅇ

- ② 케미, 빵서플, 개이득, 귀차니즘, 프사, 눈팅, 피시방

릿속 사전에 부착되어 있는데, 기존 낱말은 전체로서 저장되며 화자들은 선택적으로 낱말을 분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새말을 만들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새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임지룡 1997:252)

③ 낚시, 품절남↔품절녀, 검은 머리 외국인, 토끼다, 김여사

위 ①은 음운론적 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카추카(축하축하)’는 음운축약, ‘숨가’는 음절도치, ‘오나전’은 ‘완전’의 오타, ‘ㅇㅇ’는 ‘응, 그래, 알았어’의 초성 표기이다. ②는 형태론적 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케미’는 외래어의 축소, ‘빵셔틀’은 합성, ‘개이득’은 접두파생어, ‘귀차니즘’은 접미파생, ‘프사’는 준말, ‘눈팅’은 혼성, ‘피시방’은 대치에 해당한다. ③은 의미론적 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낚시’는 실제 ‘낚시’와 비슷한 뜻으로 사람을 심리적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말하며 떡밥과 비슷하여 유의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품절남↔품절녀’는 반의어의 예이고, ‘토끼다’, ‘김여사’는 관용구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신조어의 생성 방식은 음운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어휘특성에 따른 신조어의 분류

신조어의 분류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적 측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신조어는 사전 등재어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신조어의 특성상 시사성이 강한 일시적 유행어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조어는 통신상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조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원활한 의사 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층에서는 더욱 그러하다⁶⁾.

3.1. 음운론적 측면

음운론적 변화는 신속하고 간편한 인터넷 통신언어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음축약, 음절도치,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하는 비음절 표기 등이 해당

6) 앞장에서 분류하였던 한국어의 어휘를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생산성이 부족하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빼고, 생산성이 강하고 빈도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신조어를 분류해 보았다.

된다.

3.1.1. 자음축약

- (3) ① 추카추카(축하축하): 축하한다는 뜻으로 ‘ㄱ’과 ‘ㅎ’의 축약으로 ‘ㅋ’이 되었다.
 ② 방가방가: ‘반갑다, 반갑다’의 축약어이다.

3.1.2. 음절도치

- (4) ① 습가: 가슴
 ② 흐뭇하다: ‘흐뭇하다’에서 ‘ㄹ’과 ‘ㅎ’을 바꾸어 쓴 말이다..

3.1.3. 자음초성⁷⁾

- (5) ① ㄱㄱㅈ: 고고쟁(Go Go 썹)에서 초성만 따온 것이다.
 ② ㄱㄷ: 기다려주세요의 뜻.
 ③ ㅈ: 감사합니다의 뜻.
 ④ ㄱㅈ: 귀찮아 혹은 팬찮다의 뜻.
 ⑤ ㄱㅂ: 아까비에서 '까비'의 초성.
 ⑥ ㄱㅈ: 꺼져의 뜻.
 ⑦ ㄴ: 영어 No의 뜻이다.
 ⑧ ㄷㄷ: 덜덜의 뜻
 ⑨ ㄷㅈ: 닥쳐의 뜻.
 ⑩ ㄹㅈ: 미친의 뜻.
 ⑪. ㅂㅈ: 병신의 뜻.

7) 보통 이모티콘이라 부르는데, 자음이나 모음을 사용하여 표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ㅠ, ㅌㅌ, TT, :우는 모습
 :) : 웃는 표정
 :), :-), ^o^, ^-^, ^_^, ^v^ : 웃는 표정

- ⑫ ㅅㄱ: 수고의 뜻
- ⑬ ㅅㅅ, ㅅㅅ: 시발의 뜻.
- ⑭ ㅈㄹ: 지탈의 뜻.
- ⑮ ㅈㅈ: 죄송합니다의 뜻.
- ⑯ ㅈㅈ: 출석 체크의 뜻.

3.1.4. 모음초성

- (6) ① ㅗㅓㅑ: 오우야의 초성, 감탄사.
 ② ㅇ, ㅇㅇ: 응, 그래, 알았다는 뜻.

3.1.5. 자음+모음

- (7) ① ㄱㅇㄷ: 개이득의 초성.
 ② ㄴㅇㄹ: 마니오링의 초성으로(많이 올인했다는 뜻) 손해가 막심하다는 뜻.

3.1.6. 모음+자음

- (8) ① ㅇㄱㄹㅇ: 이거 리얼의 초성.
 ② ㅇㄴ: 오노 혹은 아놔의 초성.
 ③ ㅇㄷ: 어디의 초성.
 ④ ㅇㅅ: 일베의 초성
 ⑤ ㅇㅈ: 인정의 초성.
 ⑥ ㅇㅋ: 오케이의 초성.

3.1.7. 오타

- (9) ① 뽕미: 뽕임의 오타.
 ② 수든: 수준의 오타
 ③ 오나전: 완전의 오타.
 ④ 스빈다: 습니다의 오타.
 ⑤ 켜라: 제발의 오타.

3.2. 형태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은 신조어의 생성 방식 중에서 가장 활발한 생산성을 보여준다. 형태의 확장이나 축소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조어법 측면에서는 혼성, 합성, 대치 등의 방식과 생산성이 높은 파생, 준말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3.2.1. 형태 확장

형태 확장은 형태의 늘어남을 가리킨다. 신조어 생성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어+한국어, 한국어+외래어, 외래어+한국어, 외래어+외래어 등의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10) 한국어+한국어⁸⁾

- ① 걸개그림: 주로 대학가 건물의 내벽이나 외벽에 걸도록 만든 그림.
- ② 소금안개: 개펄의 염분, 토사가 뒤엉켜 발생하는 안개.
- ③ 금연침: 금연을 위해 한방에서 귀부분에다 놓는 침.

(11) 한국어+외래어

- ① 배꼽티: 젊은 여성들의 배꼽을 드러낸 티셔츠.
- ② 실버주택: 노인들을 위한 맞춤 주택.
- ③ 깜짝쇼: 관중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

(12) 외래어+한국어

- ① 노답: 답이 없다. 답답한 사람이나 짜증나는 문제 등을 지칭한다.(No + 답)
- ② 노잼: 재미가 없다는 뜻.(No + 재미)

8) 여기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한국어의 범주에 넣어서 다루었다. 외국인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판단이다.

- ③ 득템: 얻을 득(得)+Item의 합성어.
- ④ 킹왕짱: King+王+짱,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

(13) 외래어+외래어

- ① 촌데레: 새침데기. 일본어 촌촌(つんつん)+ 데레(でれでれ)
- ② 커플룩: 영어 Couple과 look의 결합어로 그 뜻은 커플들이 똑같은 의상을 맞춰 입는 것을 가리킨다. 비슷한 의미로 커플티가 있다.

3.2.2. 형태 축소

형태 축소는 형태 확장과는 반대로 원래 형태에서 줄어든 것을 가리킨다. 주로 외래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 (14) ① 썸: 영어 something에서 변형된 형태,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단계
- ② 케미: 영어 chemistrydptj 유래. 궁합, 어울림, 교감 등의 뜻으로 쓰임.

3.2.3. 조어적 분류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합성, 파생, 준말, 혼성, 대치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파생과 준말이다.

3.2.3.1. 합성

신조어에서 합성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신조어의 특성이 신속함과 간편함에 있는데 합성어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 (15) ① 끝판왕: 보통 게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끝판에 나오는 대장 몬스터를 가리키는 말로서 최고나 최악을 뜻함.
- ② 떡실신: 비참하게 깨지는 경우를 말한다.(떡+실신)떡처럼 납작하게 뺨 어버렸다.
- ③ 빵셔틀: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다주는 마음 약한 학생, (빵+shuttle)

3.2.3.2. 파생

파생은 신조어의 조어적 특성에서 생산성이 높은 것 중 하나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속함과 간편함, 조어 능력에서 파생의 방법이 신조어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6) 접두파생어

- ① 개-: ‘정말, 완전’이란 뜻이다. 예) 개 좋음, 개 꿀, 개 이득
- ② 갓: 영어에서 유래, 아주 뛰어난을 의미, 갓연경(배구 선수 김연경)
- ③ 캐: 개가 격음화한 말로,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 캐안습.

(17) 접미파생어

- ① -각: 무엇인가를 확신할 때 쓰는 접미사⁹⁾. 예) 인정각, 승리각
- ② 귀차니즘: 귀찮다+ nism, 귀차니스트와 비슷함.
- ③ -까: 누구를 까다에서 유래, 특정 대상을 싫어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 ④ -빠: -에 빠지다에서 유래. 극성 팬을 의미하기도 함. 빠순이, 빠돌이
- ⑤ -충: 벌레 충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비하하려는 의도로 쓰임. 일베충, 진지충, 급식충, 톨딱충
- ⑥-짱: 장[將]에서 유래되었다. 최고를 의미한다. 몸짱, 춤짱, 얼짱

3.2.3.3. 혼성어

혼성어 역시 합성어와 같은 이유로 파생이나 준말에 비겨 생산성이 높지 않은 조어 방식이다.

- (18) ① 눈팅: 눈으로 채팅한다는 뜻으로, 카톡이나 인터넷 상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9)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흥행을 통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상대 플레이어를 죽일 가능성을 ‘킬 각(kill 角)’이라고 하였고, 후에 축소되어 ‘각’으로 쓰이고 있다.

- ② 킴팅: 컴퓨터 미팅
- ③ 휴게텔: 휴게실 겸 호텔

3.2.3.4. 준말(약어)

준말은 파생과 마찬가지로 신조어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조어 방식이다. 신속함이 요구되는 시대 환경, 통신 환경에 의해, 최근 더욱 활성화되는 신조어 조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19) ① 개인전(겐전): 개인끼리 하는 게임. 반의어 팀전.
- ② 개인톡(겐톡): 인터넷상에서 하는 개인간 채팅. 반의어 단톡.
- ③ 겐트위한: 겐지,트레이서,위도우메이커,한조의 머리글자.
- ④ 관심병: 관심 받을 목적으로 병적으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 비슷한 단어로 관중(관심종자)이 있음.
- 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의 뜻.
- ⑥ 누물보: 누가 물어봄의 뜻.
- ⑦ 먹튀: 먹고 튀다의 뜻.
- ⑧ 먹방: 먹으면서 하는 방송.
- ⑨ 극혐: 극히 혐오스럽다의 뜻.
- ⑩ 프사: 프로필 사진의 뜻.
- ⑪ 호갱님: 호구+고객님의 합성어
- ⑫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앞글자 모음.
- ⑬ 강추: 강력 추천
- ⑭ 강퇴: 강제 퇴장
- ⑮ 개취: 개인 취향
- ⑯ 광탈: 광속 탈락
- ⑰ 겨털: 겨드랑이털

3.2.3.5. 대치

접미사 파생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 내는

단순하고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20) ① 피시방: 노래방, 빨래방
 ② 율로족: 나홀로족, 오렌지족, 검프족
 ③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3.3. 의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은 관용적인 면과 비유적인 면이 많이 들어 있다. 기존의 낱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특히 은어의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3.3.1. 유의어

유의어는 반의어와 같이 전통적인 어휘 교수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단순한 의미의 반복보다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가르쳐야 한다. 신조어에서 유의어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 (21) ① 낚시: 실제 낚시와 비슷한 뜻으로 물고기를 낚듯 사람을 심리적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말한다. ‘떡밥’과 비슷하다.
 ② 선비: ‘진지충’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¹⁰⁾.

3.3.2. 반의어

반의어는 어휘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효과 또한 뛰어나다. 신조어 교육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 ① 반품남, 반품녀: 품절남, 품절녀의 반대말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자와 여자를 이른다.

- ② 짐승남, 짐승돌: 짐승처럼 거친 남자를 말한다. 짐승들은 짐승남들이

10) 진지충 : 접사 ‘-충’을 결합하여, 진지할 필요가 없는 맥락에서 과도하게 진지하게 행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비꼬는 말.

모인 아이들을 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반대말은 초식남이다

3.3.3 관용표현

관용표현은 사전적인 뜻으로 볼 때,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서는 그 단어 구성을 이루는 말의 의미 확장이 심하여 마치 관용구와 같은 특성을 가진 신조어를 가리킨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23) ①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

② 너프: ‘무슨 너프 사의 칼인가’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너프 사”는 실제로 장난감 칼을 만드는 회사이다. 이 단어가 만들어지고 후에 운율적 이유로 ‘버프’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능력치를 좋게 한다’라는 뜻으로 자리잡게 된다.

③ 다굴: 다함께 굴파기의 뜻으로 여러 명에서 한 명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포트리스에서 유래였다.

④ 딸바보: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다.

⑤ 머글: 혼한 일반인을 뜻한다. 해리포터에서 유래.

⑥ 사이다: 사이다처럼 답답한 상황이 통쾌하고 시원하게 전개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⑦ 썸덕: 오타쿠(일본어)→ 오덕후(우리식 발음) 심한 사람은 2배로 심덕후가 됨. 때로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쓰임.

⑧ 오크: 게임에서 나오는 못생긴 괴물의 이름, 오크녀, 오크남 등의 말로 응용된다. 반의어는 엘프다.

⑨ 잠수: 피시통신의 대화방에서 유래. 채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⑩ 작업: 2000년에 MBC 성인 시트콤 《세 친구》에서 나온 유행어. 주인공이 여자를 쫓을 때마다 작업 들어간다라는 말을 한데서 유래.

⑪ 종결자: 킹왕짱, 끝판왕과 비슷한 의미. 최고 수준의 사람.

⑫ 총알: 돈을 뜻함. 쏘다에서 유래.

- ⑬ 토끼다: 도망을 뜻하는 속어이다.
- ⑭ 김여사: 운전이 서툴거나 매너가 부족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 사장 부인이 손수 운전한데서 유래.

3.3.4. 은어

은어는 특정 조직이나 집단 계층에서 그들끼리의 제한적 의사소통용으로 사용되던 어휘를 뜻한다. 최근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통신언어의 출처는 은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 은어 중에서 언중들의 호감을 얻어 확산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게임유저 사이트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유저들 사이에서 유래한 신조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24) ① 관광: 경기나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을 의미. 외국에서 강간당하다가 일방적으로 깨지다로 쓰이고 있는데서 유래. 강간→관광 (부 정적 이미지로 발음을 변화시켜 사용, 반의어로 역관광이 있음.)
- ② 갱: 급작스런 습격.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유래
- ③ 레알: 정말이야의 뜻. 레알 마드리드에서 레알이 리얼과 발음만 다르고 철자가 일치해 리얼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 ④ 백조: 원래 뜻은 고니이나 백수의 대치형으로 아무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여자를 가리킴
 - ⑤ 대륙: 중국(지리적 요인)
 - ⑥ 열도: 일본(지리적 요인)
 - ⑦ 반도: 한국(지리적 요인)
- ⑧ 떡밥: 낚시에서 사용하는 떡밥에서 유래. 특정 집단의 화젯거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4. 투명성의 양상과 수용성

4.1. 투명성의 양상

인터넷 신조어에서 의미하는 투명성이란 신조어의 의미 짐작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그 형성의 원리나 이유를 짐작하기가 힘든 상태는 불투명성으로 보고, 둘째,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것은 반투명성이고, 셋째, 쉽게 짐작이 가는 경우는 투명성으로 본다. 이 투명성은 신조어의 생산성이나 수용성에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높은 신조어가 생산성이 높으며, 수용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4.1.1. 불투명성 신조어

불투명성 신조어는 그 원래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는 의미가 굳어진 어려운 관용어의 경우와 유사하며, 신조어의 비율로 보면 수치가 낮다. 불투명한 신조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25) ① 끝판왕: 최고나 최악을 뜻함(보통 게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끝판에 나오는 대장 몬스터를 가리키는 말)..
- ② 너프: 능력치를 좋게 한다'라 는 뜻('무슨 너프 사의 칼인가'라는 말에서 부터 유래되었다. 너프사 는 실제로 장난감 칼을 만드는 회사임).
- ③ 다굴: 다함께 굴파기의 뜻으로 여러 명에서 한 명을 공격한다는 뜻(포트리스에서 유래).
- ④ 머글: 흔한 일반인을 뜻한다(해리포터에서 유래).
- ⑤ 오크: 게임에서 나오는 못생긴 괴물의 이름(오크녀, 오크남 등의 말로 응용, 반의어는 엘프).

위 예들은 주로 관용표현에 해당한다. 풀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는 그 뜻을 짐작하기 힘들다. ① ‘끝판왕’ 같은 경우는 언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

- (26) ① 관광: 경기나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을 의미.(외국에서 강간당하다가 일방적으로 깨지다로 쓰이고 있는데서 유래. ‘강간→관광’부정적 이미지로 발음을 변화시켜 사용, 반의어로 역관광이 있음.)
- ② 갱: 급작스런 습격(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유래).
- ③ 레알: 정말이야의 뜻(레알 마드리드에서 레알이 리얼과 발음만 다르고 철자가 일치해 리얼과 같은 뜻으로 쓰인데서 유래).

위 예들은 은어적 표현들이다. 은어적 표현들은 다른 것에 비해 더욱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아서는 그 의미가 짐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1.2. 반투명 신조어

반투명성으로 분류하는 것의 특징은 그 의미가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 구조가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주로 자음이나 모음 초성, 이모티콘, 파생어의 경우가 해당된다.

(27) 자음초성

- ① ㄱ : 감사합니다의 뜻.
- ② ㄴ : 미친의 뜻.
- ③ ㅁ : 병신의 뜻.
- ④ ㅅ : 수고의 뜻
- ⑤ ㅈ : 죄송합니다의 뜻.

모음초성

- ① ㅇ, ㅁ : 응, 그래, 알았다는 뜻.
- ② ㅁ : 인정의 초성.
- ③ ㅁ : 오케이의 초성.

위 예들은 자음이나 모음의 초성 만을 따서 만든 것으로, 몇 번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구조를 가진 신조어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신조어의 생성 배경에는 화자들의 신속성, 익명성 등을 선호하는 심리적 요인이 들어 있다.

- (28) ① 개- : ‘정말, 완전’ 이란 뜻이다. 예) 개 좋음, 개 꿀, 개이득
 ② 갓 : 영어에서 유래, 아주 뛰어난을 의미, 갓연경(배구 선수 김연경)
 ③ -각 : 무엇인가를 확신할 때 쓰는 접미사¹¹⁾. 예) 인정각, 승리각
 ④ -빠 : -에 빠지다에서 유래. 극성 팬을 의미하기도 함. 빠순이, 빠돌이
 ⑤ -충 : 벌레 충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비하하려는 의도로 쓰임. 일베충, 진지충, 급식충, 툇딱충

위 예들은 파생어 형성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들이다. 파생어가 가진 생산성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을 가진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 (29) ① 총알: 돈을 뜻함. 쏘다에서 유래.
 ② 김여사: 운전이 서툴거나 매너가 부족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 사장 부인이 손수 운전한데서 유래.
 ③ 백조: 원래 뜻은 고니이나 백수의 대치형으로 아무일도 하지 않고 빈둥 빈둥 노는 여자를 가리킴
 ④ 대륙: 중국(지리적 요인)
 ⑤ 떡밥: 낚시에서 사용하는 떡밥에서 유래. 특정 집단의 화젯거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위 예들은 은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불투명성 신조어에 비해 의미 추

11)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흥행을 통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상대 플레이어를 죽일 가능성을 ‘킬 각(kill 角)’이라고 하였고, 후에 축소되어 ‘각’으로 쓰이고 있다.

측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 때문에 언중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1.3. 투명 신조어

투명한 신조어는 그 의미가 쉽게 짐작이 가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음운론적 변화에 의한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태론적으로는 준말의 형태가 많이 해당된다.

(30) ① 추카추카(축하축하), 방가방가

② 흐트하다: ‘흐뭇하다’에서 ‘口’과 ‘ㅎ’을 바꾸어 쓴 말이다..

③ 뽕미(뽕임), 오나전(완전), 쯤라(제발)

위 ①은 축약에 의한 신조어이다. 축약은 신속성에서 언중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②는 음운도치에 의한 방법인데, 이는 예부터 쓰였던 방법이다. ③은 오타에 의한 신조어이다. 이는 참신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심리가 담겨있는 경우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반영되어 있다.

(31) ① 노답(.No + 답), 노잼(No + 재미), 득템(得+Item), 킹왕짱(King+王+짱)

② 춘테레(춘춘(つんつん)+ 데레(でれでれ), 커플룩(Coupl+ look)

위의 ①은 ‘외래어+ 한국어’의 예이고, ②는 ‘외래어+ 외래어’의 예이다. 신조어의 특성상 참신성이라는 면에서 ①의 예가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의 경우는 참신한 면에서는 ①과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익숙지 않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32) ① 썸(영어 something), 케미(영어 chemistrydptj)

② 개인전(감전), 개인톡(감톡), 관중(관심종자),프사(프로필 사진), 강퇴(강제 퇴장, 개취(개인 취향), 광탈(광속 탈락), 겨털(겨드랑이털)

- ③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먹튀(먹고 튀다), 먹방(먹으면서 하는 방송)
- ④ 호갱님(호구+고객님)
- 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앞 글자 모음)

음절, 단어를 줄이는 것은 신조어의 특성상 신속성, 경제성, 익명성 등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조어 형성에서 가장 즐겨 사용되는 방식이다. 위의 ①은 음절을 줄인 형태이다. ②는 준말로서 신조어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언중 또한 즐겨 사용하고 있다. ③은 단어를 넘어 문장으로 확대된 경우이다. ④는 준말 형성 중에 음운 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⑤는 독특한 형태의 축약 형태인데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다.

4.2. 수용성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성이란 인터넷 신조어를 언중들이 받아들이는 태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신조어 목록 편입, 표준어로 격상 가능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¹²⁾. 최근 확산되는 인터넷 신조어는 경제성, 신속성,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언중들을 화자와 청자로 나누어 볼 때, 현재 통용되는 신조어는 청자에게는 조금 불편한 언어이다. 이는 화자 위주의 신조어 생성 성향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 중에서 의미 짐작이 쉬운 즉, 투명성이나 반투명성 성향의 신조어들이 수명이 길게 가는 경향이 있다.

4.2.1. 신조어 등록

2006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존맛(존나 맛있다, 음식이 매우 맛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존예(존나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약협(약간 혐오), 의란성쌍둥이(의사들의 성형 시술로 비슷해진 사람) 등은 신조어로 등록하였다¹³⁾.

12)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 문제이다. 심지어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에는 cu(see you), 2day(today), b4(before) 등이 등재되어 있다.

13) 다음은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등록한 것의 일부분이다.

너섹남: 너가 섹시한 남자, 돼지맘: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여자, 심쿵: 심장이 쿵, 오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포기 세대, 인생짤: 최고로 잘 나온 사진

물론 신조어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표준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맛’이나 ‘존예’는 신조어로써 등록하기에는 비속어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의란성쌍둥이’는 남녀 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신어 등록에도 일정한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신조어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니 만큼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참신성, 대중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속어나 남녀 차별적인 것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신조어 등록 기준

- ① 사회상 반영: 오폭세대
- ② 참신성: 모루밍족
- ③ 대중성: 심쿵
- ④ 비속어 금지
- ⑤ 남녀차별적 요소 배제

4.2.2. 표준어 등록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를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표준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신조어 등록 이후 약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다시 표준어로서 등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한국어 조어법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문법적 의식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는 중요하다. 둘째, 고유어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래어가 혼재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왕이면 고유어(한자어 포함)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용성(대중성)을 가져야 한다. 어느 일부 계층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소통성을 가져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신조어의 생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양산되는 인터넷 신조어는 일상적 유행어와 은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터넷 신조어의 특성이 신속성, 경제성, 익명성에 근거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일부 비속어를 제외하고는 언중들의 언어 범주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에 대한 생성원리와 실태를 분석 정리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어 생성의 계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신조어는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명명, 외래어의 순화 요구, 기존 표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새로운 표현 욕구의 필요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신조어의 생성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음운론적 측면에서는 자음 축약, 음절도치, 비음절 표기로 분류하고, 형태론적 측면에서는 형태 확장, 축소, 합성, 파생, 준말, 혼성, 대치 등으로 분류하고,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유의어, 반의어, 관용표현, 은어 등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인터넷 신조어 중에서 일상적인 유행어와 은어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수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넷 신조어에서 의미하는 투명성이란 신조어의 의미 짐작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형성의 원리나 이유를 짐작하기가 힘든 상태는 불투명성으로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것은 반투명성이고, 쉽게 짐작이 가는 경우는 투명성으로 본다. 이 투명성은 신조어의 생산성이나 수용성에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높은 신조어가 생산성이 높으며, 수용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언중들은 의미 투명성이 높을 수록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수용성은 인터넷 신조어를 언중들이 받아들이는 태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신조어 목록 편입, 표준어로 격상 가능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조어 목록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 ‘사회상 반영’, ‘참신성’, ‘대중성’, ‘비속어 금지’, ‘남녀 차별적 요소 배제’ 등의 다섯 가지 등록 기준을 제시하였고, 표준어 등력을 위한 조건으로는 ‘한국어 조어법 준수’, ‘고유어 구성’, ‘통용성’ 등의 세 가

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Shin Heesam. 2018. Formation of Neologisms on The Internet.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9: 65-88. The formation, development, extinction of vocabulary is somewhat related to a social phenomenon. Especially the recent rapid progress of Internet environment is making many changes of people's communication. People think the anonymity is important because of the easiness, quickness and concealment. this tendency made temporary fad words and slangs on the Internet. Dealing with the formation of neologisms on the Internet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neologisms belong to present Korean vocabularies in use. Second,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on neologisms. One is a positive view of proliferation, another is a negative view of destruc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meaning characteristic, categorization, transparency and acceptability of typical neologisms. In Chapter 2, the meaning characteristic and three ways of formation of neologisms are discussed. In Chapter 3, focused on the ordinary fad words and slangs among neologisms, neologism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eaning characteristic which has phonological characteristic, morphologic characteristic, semantic characteristic. In Chapter 4, the transparency and acceptability of neologisms are discussed. the transparency is categorized into opaqueness, translucency and transparency, the factors of acceptability are the word formation, native words, the currency, the popularity and so on.

Key words: Neologism, form extension, synthesis, compound, idiomatic derivation, hybrid, abbreviation, replacement, transparency, acceptability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7), 『사전에 없는 말』, 태학사.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 김광해(1995),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36-59.
-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도원영(2007), 국어 사전의 신어 처리, 『한국어학』 34호, 어학연구.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호, 국어학회.
- 성광수(1988), 합성어 구성에 대한 검토, 『한글』 201·202호, 한글학회. 총집, 교학사.
- 백영석(2001), 신조어 조어법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사위(2013),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
- 이승명(2001), 신어의 해석적 연구, 『이중언어학』 19호, 이중언어학회.
- 이용주(1990), 언어 단위에 대하여, 『국어교육』 69·70,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충우(2006), 『좋은 국어 어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학사.
-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태학사, 73.
- 임지룡(1997), 『인지 의미론』, 태학사, 62-87.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337-366.
- 한재영 외 (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100-244.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Bauer, L.(2001). *Morphological Produc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on, T.(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이기동 옮김(1981). 『문법이해론』. 범한서적.

<필자 소개>

이름: 신희삼

소속: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주소: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대호동, 동신대학교)

연락처: 061)330-3617

전자우편: seesam@hanmain.net

접수 일자: 2018. 7. 11.

심사 일자: 2018. 8. 02.

게재 확정 일자: 2018. 8. 18.